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로의 제대로 된 진입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관(예컨대 인간의 내부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연산처리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주류심리학의 인간관),

언어관(언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투명한 장치라는 생각-대응이론)

그리고 본질주의(인간의 내부에 지금의 인간을 있게 한 본질이 존재한다는 생각) 등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류심리학의 인간관, 전통적인 언어관 그리고 본질주의와 같은 틀을 그대로 고수한 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 본들 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는 열리지 않는다.

주류심리학적인 인간관은 다음의 김영민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지각 있는 학자라면 함부로 들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아 지각 있는 학자들이여 다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인간은 그 매체적 여건 속에 관계의 닻을 내리면서 쉼 없이 변해간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맺은 관계, 대면과 육성으로 맺은 관계, 글쓰기로 맺은 관계, 핸드폰으로 맺은 관계, 혹은 살이나 화폐로 맺은 관계 사이의 차이는 이미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문제가 된다. 이미 오래 전에 '인간은 자신의 바깥에 존재한다'(헤겔)고 했거니와, 현대의 인간은 자신들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갖은 매체들 속으로(그러므로, 바깥으로) 들어가(그러므로, 나와) 버렸다(김영민『동무와 연인』중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being-human 늘 되어가는 존재이다. 하여 마음으로 맺으면서 어떤 인간이 되고 대면과 육성으로 맺으면서 또 어떤 인간이 되고 핸드폰을 매개하여 또 다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전통적인 언어관에 대해서 잠시 말하자면 '언어는 과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투명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철저히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일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과학언어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Emily Martin의 분석을 참고로 생물학이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Martin은 교실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의 텍스트가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artin은 여성의 신체가 자손을 남기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장]으로서 표현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월경과 갱년기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기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생물학 교과서에서 월경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여기서 예시해보자.
[프로게스테론(황체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매우 두꺼워진 자궁내막을 유지하고

있던 호르몬의 움직임이 손상을 받는다] 혈관의 [수축]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물의 공급이 감소한다] 그리고[내막이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내막전체가 떨어져 나가서 월경이 발생한다][호르몬 자극이 결여되어서 자궁내막의 세포는 죽게 된다]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월경을 [자궁이 아기가 없어서 울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Martin은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과학의 기술에서 조차도 결코 중립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는 결코 투명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월경과 갱년기가 어떤 종류의 결함과 부전(不全)이라는 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믿게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성은 이러한 설명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체로부터 소외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기술은 여성에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토양을 초경부터 폐경까지 매월, 그리고 폐경 후는 영원히-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여성은[비생산적]이라는 암묵의 비난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Martin이 지적한 두 번째 점은 여성의 월경과 갱년기를 다른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부정적인 기술은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남성의 利害와 관심---여성을[아동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이데올로기-을 반영한 것이다.
Martin은 자신의 주장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월경과 갱년기와 똑같이 기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렇지 않은 신체적인 프로세스-일부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생물학 교과서는 위벽의 변화를 [renewal]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남성의 사정(射精)이라는 현상을 기술할 때 '잃어 버렸다' '쓸데없는 것으로 하다' 등으로 기술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이 생물학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기술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해(利害)와 관심을 반영하고 역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불리한 기술이 선택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구성주의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회학이나 과학사회학 그리고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러한 근대적 자아관, 인간관, 언어관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교육학 분야에서는 무슨 수업을 개선한다는 도구로서만 이용되고 있으니(사회적 구성주의가 잘못 소개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자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을꼬?

김영민 선생이 말하고 있듯이 다른 세계에로의 참다운 진입은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사다리를 던져 버리는 행위 자체인 것이다. 이는 어학(語學)의 완성이 문법의 정점에 있지 않다는 평범한 지적과 같은 이치이다. 주름살의 수(數)와 그 골의 깊이는 어쨌든 애벌레의 문제이지 나비의 문제가 아니다. 애벌레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특정한 단계 속에 나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행위 속에 나비가 창조되는 것이다. 즉 구각(舊殼)을 던져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현기(眩氣)속에 자신의 미래를 아낌없이 맡기는 기투(企投)가 가능할 때 변신은 찾아오는 것. 고착과 소유와 우상화 속의 안온

(安穩)을 유혹하는 온갖 전통 속의 앙금들을 늦봄의 어느 좋은 날 난비(亂飛)하는 꽃이파리들처럼 던져 버리고 오직 시간의 무게만을 대면하여 스스로를 비우는 것.
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은 자들이여 제발 쌓으려 하지 말고 이제 이것저것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자.